

# 上代詩歌文學에 있어서의 密敎의 性格考究

李 妍 淑\*

## 目 次

I. 序	III-3. 語釋과 作者 問題
II. 韓國上代佛敎에 있어서의 雜密的 性格	IV. 兜率歌
III. 彗星歌	IV-1. 兜率歌의 呪密的 性格
III-1. 彗星歌의 呪密的 性格	IV-2. 散花歌와 兜率歌
III-2. 彌勒菩薩·乾達婆의 雜密的 性格	V. 禱千手觀音歌의 呪密的 性格
	VI. 結

## I. 序

上代詩歌文學은 ① 龜旨歌·海歌등과 같이 고유신앙에 바탕한 呪歌 ② 彗星歌·兜率歌·禱千手觀音歌와 같은 佛敎信仰에 바탕을 둔 呪歌의 二重構造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本論文에서는 後者의 三首 郷歌에 대해 雜密的의 側面<sup>1)</sup>에서 考察해 보고자 한다.

\*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 1) 密敎라는 것은 顯敎에 대한 秘深深奧한 敎라는 의미로 敎主相違·果分說不·權實差別·成佛遲速·敎益勝劣 등의 면에서 顯敎와 구분된다. 密敎에도 大日始來가 自受法樂을 위해 그 內證法門을 배운 金(剛)·胎(藏) 兩部大法의 純密과, 단지 衆生化益을 위해 그 性欲에 응해 베푸는 雜密이 있다. 新羅時代 密敎에 관해서는 朴泰華님의 「韓國佛敎의 密敎經典傳來考」(『韓國佛敎學』第一輯, 1975年 12月), 文明大님의 「新羅神印宗의 研究」(『震檀學報』第41號, 1976年 4月), 金在庚님의 「新羅의 密敎受容과 그 性格」(『大丘史學』第14輯, 1976年 6月) 등의 논문이 있다.

郷歌文學에 있어서의 密敎의 性格에 관한 연구로는 金鍾雨님의 「讚者婆羅詞腦歌와 神密道」(『郷歌文學論』, 親學社, 1976년)과 金承璨님의 「郷歌의 佛敎的 考察」(『人文論叢』第23輯, 釜山大學校, 1983年 6月)의 논문이 있을 뿐이다.

## II. 韓國上代佛敎에 있어서의 雜密的 性格

韓國上代佛敎에 있어서의 雜密的 性格은, 먼저 三國遺事·三國史記에 한정하여 新羅時代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 三國遺事 卷二 文虎王 法敏條의 明朗法師가 文豆婁秘法<sup>2)</sup>으로 唐兵을 調伏시켰다는 記事, 卷五 密本摧邪條의 興輪寺의 僧 法揚이 고칠 수 없었던 善德王 德曼의 病이 密本法師가 震仗 밖에서 藥師經을 읽고 있는 도중, 가지고 있던 六環杖이 칩실 안에 날아 가 老狐 한 마리와 法揚을 찢러 뜯 가운데 거꾸로 내던진즉, 곧 나았다는 記事를 비롯하여 卷四의 圓光西學·義湘傳敎·眞表傳簡條 卷五의 朗智乘雲 普賢樹條에서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三國史記에서도 卷第四十二 列傳第二 金庾信條에 新羅軍이 高句麗와 靺鞨軍에게 포위되었을 때 金庾信이 佛寺에 가서 壇을 만들고 기도하였다 함과, 또 唐將 蘇定方의 요청에 응해 軍糧을 수송하기 전에 무사히 수송할 수 있도록 縣鼓岫에 있는 岫寺에 가서 靈室에서 數日間 향을 피웠다고 함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이미 韓國의 百濟·高句麗에 雜密이 수입되어 있었음은 日本書紀 속의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추찰할 수 있다.

① 冬十一月庚午朔 百濟國王 付還使大別王等 獻經論若干卷 并律師·禪師·比丘尼·呪禁師·造佛工·造寺工·六人 遂安置於難波大別王寺(卷第二十 敏達天皇六年條)

② 秋七月…中略…是時 鹿戶皇子 束髮於額古俗, 年少兒年, 十五六間 束髮於額十七八間, 分爲角子, 今亦然之. 而隨軍後 自村度日 將無見敗 非願難成 乃斷取白膠木 疾作四天王像 置於頂髮 而發誓白膠木 此云 農利尼 今若使我勝敵 必當奉爲護世四王 起立寺塔 蘇我馬子大臣 又發誓言 凡諸天主 大神王等 助衛於我 使獲利益 願當奉爲諸天與大神王 起立寺塔 流通三寶…中略…亂之後 於攝津國 造四天王寺<sup>3)</sup>(卷第二十一 崇峻天皇 即位前紀條)

2) 이 秘法은 『佛說灌頂七萬二千神王護比丘呪經』卷第七 『佛說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高麗大藏經十 pp.1276-80)에 상세하게 보인다.

3) 『日本書紀』欽明天皇六年九月條에 百濟가 丈六佛像을 보내었다고 하였고, 十三年十月條에는 百濟의 聖明王이 釋迦佛의 金銅像一軀·幡蓋若干·經論若干卷을 보내었다고 되어 있다. 또 敏達天皇十三年九月條에는 百濟로부터 鹿

③ 冬十月 百濟僧勸勒來之 仍貢曆本及天文地理書 并遁甲方術之言也 是時 選書生三四人 以俾學習於勸勒矣 陽胡史祖王陳習曆法 大友村主高聰學天文遁甲 山背臣白立學方術 皆學以成業 (卷第二十二 推古天皇 十年條)

④ 夏四月戊戌朔 高麗學問僧等言 同學鞞作得志 以虎爲友 學取其術 或使枯山變爲青山 或使黃地變爲白水 種種奇術 不可殫究 又虎授其針曰 慎矣慎矣 勿令人知 以此治之 病無不愈 果如所言 治無不差 得志 恒以其針隱置柱中 於後 虎折其柱 取針走去 高麗國 知得志欲歸之意 與毒殺之 (卷第二十四 皇極天皇 四年條)

그러면 本論文에서 論하고자 하는 三首의 향가의 性格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 노래들이 수록되어 있는 三國遺事의 撰者의 密敎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言及해 둘 필요가 있겠다.

三國遺事의 撰者가 一然 한 사람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지나, 어쨌든 撰者는 密敎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卷三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條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四方如來’·‘四面刻四方佛’ 그리고 景德王이 唐의 代宗皇帝에게 보낸 ‘萬佛山’ 등 密敎의 性格이 나타나 있는데 散文 뒤의 撰者의 讚이

天粧滿月四方裁  
地湧明毫一夜開  
妙手更煩彫萬佛  
眞風要使遍三才

라 되어 있다. 第四句에서 볼 수 있듯이 撰者는 ‘眞風은 三才에 펼쳐야만 한다’라고 하여 密敎에 대해서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卷四 眞表傳簡條에서, 搭鐵法이 占察經에 의한 것이며 占察經에 譯者名과 그 날짜, 장소 등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중국에서는 그것을 금지시켰다고 하는 唐僧傳의 記錄을 비판하여

深臣이 彌勒石像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百濟로부터 佛敎를 전해 받은 日本에서 崇峻天皇 때에 四天王信仰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百濟에도 일찍부터 이 信仰이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若曰占察經無譯人時處 爲可疑也 是亦擔麻棄金也 何則 詳彼經文 乃悉壇深密 洗滌穢暇 激昂懶夫者 莫如此典

이라고 하였다. 舍利佛問經을 구체적 근거로서 인용한 후

據此 則與占察經擲輪得相之事 奚以異哉 乃知表公翹憊得簡 聞法見佛 可謂不誣 況此經若僞妄 則慈氏何以親援表師

라 하여 占察經을 변호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三國遺事 전반에 걸쳐서, 百座法會등의 正統的 佛教儀式에 관한 記事는 적음<sup>4)</sup>에 비해 新羅時代에 있어서 密敎와 밀접히 관련된 藥師·彌勒·觀音·文殊·菩薩 등에 관한 記事는 많은 점으로 보아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三國遺事의 篇目이다. 즉 梁의 慧皎의 高僧傳과 唐의 續高僧傳 등에는 ‘神呪’가 보이지 않으나 三國遺事에는 卷五의 第六에 그것이 독립된 篇目으로서 들어 있기 때문이다.

撰者의 이와 같은 태도에서 三國遺事 전반에 걸쳐서 密敎의 內容이 수록될 수 있었겠지만, 이것은 또한 三國遺事가 佛教經典을 講한 것이 아니라 諸說話를 모은, 變文의 俗唱文學과도 관련성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도 더욱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보아 三首의 鄉歌도 密敎的 側面에서 고찰해 볼 수 있겠는데 구체적 작품을 들어 論해 보고자 한다.

### Ⅲ. 擘星歌

먼저, 擘星歌가 들어 있는 卷第五 感通第七 中の 融天師 擘星歌 眞平王代條의 本文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4) 三國遺事에는 仁王道場을 設한 것이 一個所(卷二 聖德王條), 百座法會에 관해서는 二箇所(卷二 景哀王條·卷四 圓光西學條)에 보인다. 그에 비해 正史인 三國史記에는 百座法會에 관한 記錄이 八箇所에 보인다.

第五居烈郎 第六實處郎〔一作突處郎〕第七寶同郎等三花之徒 欲遊楓岳 有彗星  
犯心大星 郎徒疑之 欲罷其行 時天師作歌歌之 星恠即滅 日本兵還國 反成福慶 大  
王歡喜 遣郎遊岳焉 歌曰

舊理東尸汀叱  
乾達婆矣遊鳥隱城叱勝良望良古  
倭理叱軍置來叱多烽燒邪隱邊也蔽耶  
三花矣岳音見賜鳥聞古  
月置八切爾數於將來尸波衣  
道尸掃尸星利望良古  
彗星也白反也人是有多  
後句  
達阿羅浮去伊叱等邪  
此也友物比所音叱彗叱只有叱故

위 說話는 彗星의 出現에서 國家의 위기가 예상되었는데 融天師가 彗星  
歌를 지어 불러 그 위기를 예방했다고 하는 것을 主內容으로 하고 있다.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日本兵의 來侵을 말하고 있음이 散文 속의 ‘日  
本兵還國 反成福慶’이라 함과 노래의 第三句가 ‘倭理叱軍置來叱多烽燒邪  
隱邊也蔽耶’로 되어 있음으로 보아 명확히 알 수 있다. 彗星歌가 결과적  
으로 日本兵을 퇴치시킨 점에서 諸學者들은 本歌를 呪歌로 보았으나 筆者  
는 眞言의 性格을 지닌 노래로 보고자 하는데 다음에서 그에 대해 논증해  
보고자 한다.

### III-1. 彗星歌의 呪密의 性格

먼저 彗星出現과 같은, 國家 위기의 징후로 보여지는 天文地理의 異變  
現象에 對한 關心은 儒敎思想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諸佛敎經典, 그 중  
에서도 특히 金光明最勝王經 卷第六 四天王護國品第十二 속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四天王俱共合掌白佛言 世尊 若有人王 於其國土 雖有此經 未常流布 心生捨離 不  
樂聽聞 亦不供養尊重讚歎 見四部衆持經之人 亦復不能尊重供養 遂令我等及餘眷屬  
无量諸天 不得聞此甚深妙法 背甘露味 失正法流 無有感光及以勢力 增長惡趣 損滅  
人天 墜生死河 乖涅槃路 世尊 我等四王并諸眷屬及藥叉等見如斯事 捨其國土 無擁

護心 非但我等捨棄是王 亦有无量守護國土諸大善神悉皆捨去 既捨離已 其國當有種種災禍 喪失國位 一切人衆皆无善心 惟有繫縛愆害瞋誦 平相譏誦 狂及無辜 疾疫流行 彗星數出 兩日並現 博蝕无恒 黑白二虹 表不祥相 星流地動 井內發聲 暴雨惡風 不依時節 常遭飢饉 苗實不成 多有他方怨賊侵掠國內 人民受諸苦惱 土地無有可樂之處(高麗大藏經九 p.1329)

이상의 內容에서 알 수 있듯이 諸佛을 供養·尊重·讚歎하지 않으면 四王 및 諸眷屬이 그 국토를 버려 ‘彗星이 자주 나타나고 두 해가 나란히 나타나는’ 등의 天災地變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三國史記·三國遺事에는 이와 같은 天文地理의 異現象에 관한 記事가 많이 보이는데, 그것을 星宿現象에 한정하여 중요한 것만 적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神女王七年夏四月……遣大臣於祖廟 致祭曰……比者 道喪君臨 義非天墜 怪成星象 火宿沉輝 戰戰慄慄 若墜淵谷…(三國史記 新羅本紀 第八)

② 聖德王十四年秋九月 太白掩庶子星 多十月 流星犯紫微 十二月 流星自天倉入大微 赦罪人(同上)

③ 惠恭王十五年春三月 太白入月 設百座法會(三國史記 新羅本紀 第九)

④ 寶藏王二十年夏五月…忽有大星落於我營 又雷雨震擊 楸音信等疑駭引退(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第十)

⑤ 寶藏王二十七年夏四月 彗星見於畢昴之間 唐許敬宗曰 彗星東北 高句麗將滅之兆也(同上)

⑥ 阿莘王七年秋八月 王將伐高句麗 出師至漢山北柵 其夜大星落營中有聲 王深惡之 乃止(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三)

⑦ 是文武大王十三年 春妖星見 地震 大王憂之 庚信進曰 今之變異 厄在老臣 非國家之災也 王請勿憂 大王曰 若此則 寡人所甚憂也 命有司祈禱之(三國史記 列傳 第三 金庚信 下)

⑧ 至二年丁未 又天狗墜於東樓南 頭如瓮 尾三尺許 色如烈火 天地亦振…是年七月 北宮庭中 有二星墜地 又一星墜 三星皆沒入地…於是大赦修省(三國遺事 卷二 惠恭王條)

⑨ 六月十二日 有彗星孛于東方 十七日 又孛于西方 日官奏曰 不封爵於琴笛之瑞 於是冊號神笛爲萬萬波波息 彗乃滅(三國遺事 卷三 栢栗寺條)

이들 기록으로 보아 星宿등의 異現象은 국가의 위기를 암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그것을 퇴치하기 위하여 소극적 방법으로 죄인을 大赦하기도 하

고 적극적 방법으로 百座法會를 열거나 祈禱를 행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에도 彗星出現에 관한 기록이 다섯군데 정도 보인다. 그 중 開成三年(八三八)十月二十二日條에는 彗星이 나타났으므로 매일 일곱명의 僧으로 하여금 七日間 涅槃·般若를 轉念하게 했다<sup>5)</sup>고 하였으며 承和八年(八四一)十一月一日條에는 彗星이 出現했으므로 諸寺에 명하여 經을 轉讀하게 했다는 기록<sup>6)</sup>이 보인다.

이상의 기록들에 보이는 百座法會·祈禱·轉讀 등에 密敎의 性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惠恭王보다 앞 시대에 外敵의 來侵을 密儀式으로 調伏시킨 구체적인 예가 三國遺事 卷二 文虎王 法敏條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時唐之游兵 諸將兵 有留鎮而將謀襲我者 王覺之 發兵之 明年 高宗使召仁問等讓之曰 爾請我兵以滅麗 害之何耶 乃下圓扉 鎮兵五十萬 以薛邦爲帥 欲伐新羅 時義相師西學入唐 來見仁問 仁問以事諭之 相乃東還上聞 王甚憚之 會群臣問防禦策 角干金天尊曰 近有明朗法師入龍宮 傳秘法以來 請詔問之 朗奏曰 狼山之南神遊林 創四天王寺於其地 開設道場則可矣 時有貞州使走報曰 唐兵無數至我境 遮槩海上 王召明朗曰 事已逼至如何 朗曰以彩帛假構矣 王以彩帛營寺 草構五方神像 以瑜珈明僧十二員 明朗爲上首 作文豆婁秘密之法 時唐羅兵未交接 風濤怒起 唐紅皆沒於水 後改觀寺 名四天王寺

이것은 唐兵이 來侵하여 오자 四天王寺를 지을 시간이 없어 彩帛으로 임시로 절을 짓고 풀로 五方神像을 만들어 瑜珈明僧十二人에 明朗을 우두머리로 하여 文豆婁秘法을 행해 唐兵을 調伏시켰다는 것이다.

시대가 다소 내려오기는 하나 新羅가 調伏法으로 外敵(日本兵)을 퇴치시킨 설화가 일본의 今昔物語集 卷第十四 依調伏法驗利仁將軍死語第四十五에 보인다. 일본 文德天皇때 조공관계로 인해 鎮守府의 장군 藤原利仁으로 하여금 新羅를 치게 했는데 調伏法이 나오는 그 뒷부분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5) 『入唐求法巡禮行記』 1, 東洋文庫 157, 平凡社, 1982年, p. 63.

6) 『入唐求法巡禮行記』 2, 東洋文庫 442, 平凡社, 1985, p. 181.

그때 新羅에서는 이 일을 몰랐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갖은 괴변이 있으므로 집을 치니 異國의 군사가 쳐들어 온다 하므로 國王을 비롯해 大臣公卿이 놀라고 두려워 하여 말하기를 ‘異國으로부터 날랜 군사가 쳐들어 온다 하는데, 맞서 싸울 방도가 없으니 다만 三寶의 영험에 깊이 의존할 뿐이라’고 정하였다. 宋에는 法全阿闍梨라고 하는, 惠果和尚의 弟子로서 眞言의 密法을 전수받은 대단한 聖人이 있었는데, 곧 그 사람을 청해 調伏의 法을 행하게 했다.

그때 三井寺의 智證大師는 젊어서 宋나라에 건너가 이 阿闍梨를 스승으로 모시고 眞言을 배웠는데 그도 함께 新羅에 건너가 있었지만 일본의 일로 인해서 임을 어찌 알았겠는가. 그러는 동안 調伏法이 이미 七日이 찼을 때 壇上에 피가 가득 넘쳐 흘렀다. 阿闍梨는 ‘만드시 法의 영험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結願한 뒤 宋에 돌아 갔다.

그런데 利仁장군이 출발하여 山崎에서 병이 나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 내달리며 허공을 향해 대검을 빼어들고 춤추며 몇 번 찌르는 바람에 넘어져 죽어 버렸다. 이렇게 되니 다른 사람을 또다시 보내는 일이 없이 끝나 버렸다.

그 후 智證大師가 宋으로부터 일본에 돌아가 新羅에 건너 갔던 일을 얘기하는 것을 듣고 일본인은 ‘그러면 利仁장군이 죽은 것은 그 調伏法의 영험에 의한 것임’을 알았다.

(今昔物語集一 小學館, pp. 611-2, 筆者譯)

위와 같은 내용의 설화가 마찬가지로 일본의 설화집 打開集의 第十一話 不空三藏驗事<sup>7)</sup>, 또 古事談 卷第三의 十四話 圓珍의 調伏에 의해 利仁將軍이 頓減한 일<sup>8)</sup>에도 보인다.

양쪽 다 내용이 극히 간략할 뿐만 아니라, 宇多天皇때의 일로 되어 있고 調伏을 행한 사람도 각각 不空三藏과 圓珍으로 되어 있어 今昔物語集와는 다소 차이가 보이지만, 新羅가 調伏法으로 日本兵의 來侵을 방지했다는 기본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 설화에 대해서 馬淵和夫氏등의 校注者는

전혀 史實과 無關한 事件이지만 어쩌면 宇多天皇때의 寬平五·六年 新羅의 賊船이 肥前, 對島에 來襲하여 격퇴된 史實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 것인가.<sup>9)</sup>

라고 하였다. 그러나 本說話의 年代가 史實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도

7) 白帝社, 1961, p. 83.

8) 『古事談』上, 現代思潮社, 1981, p. 225.

9) 『今昔物語集』1, 小學館, p. 610.

當時新羅에서는 明朗法師에 의한 文豆裏秘法과 같은 調伏法이 자주 행해지고 있었다는 事實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지금 보았듯이 明朗法師의 文豆裏秘法에 의한 唐兵調伏이나 法全阿闍利에 의한 日本兵調伏이 구체적 密敎儀式을 행하고 있음에 비해 擘星歌는 그와 같은 구체적 의식에 대한 설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앞의 두 調伏法이 다소 후대, 즉 密敎가 護國思想的 側面에서 國家的 차원까지 널리 확대·체계화된 단계의 것임에 비해 擘星歌는 新羅佛敎初期 단계에서의 것이라고 하는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擘星歌에도, 呪密的思想을 바탕으로 한 眞言의 性格의 노래로 추찰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眞言’은 梵語 漫怛囉mantra의 譯語로 眞實하여 허망됨이 없는 言詞를 의미하며 呪·神呪·呪密·密言등으로도 번역된다. 漫怛囉는 본질과 思惟를 드러내는 用具 즉 문자언어를 의미하여 특히 神鬼등에 대하여 發하는 신성한 語句를 칭하는 것이라 한다. 긴 眞言이 陀羅尼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서로 통용되는 것이며 이 眞言이 일반적 呪詞와 구별되는 것은 眞言은 如來의 加持力에 의하고 있어 그 취지를 달리하기 때문이라<sup>10)</sup>고 한다.

擘星歌는, 위에서 論할 兜率歌·禪千手觀音歌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彌勒菩薩·千手觀音과 같은 具體的인 如來의 加持力을 歌詞文면에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擘星歌가 新羅佛敎初期 단계의 것이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그러나 附帶說話에 三花郎이 보이며 노래의 第二句 ‘乾達婆矣遊鳥隱城叱朕良望良古’에 乾達婆가 들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擘星歌는 花郎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彌勒菩薩과 乾達婆神將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들 彌勒菩薩·乾達婆와 密敎와의 관계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10) 『望月佛敎大辭典』3, 世界聖典刊行協會, 1983, pp.209-30.

### Ⅲ-2. 彌勒菩薩·乾達婆의 雜密의 性格

그러면 먼저 彌勒菩薩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彌勒菩薩은 梵語 梅咀麗耶maitreya의 譯語로 慈氏로도 번역되는데 미래에 閻浮提에 下生하여 釋尊에 이어 成佛하는 菩薩이다.

三國遺事에는 彌勒菩薩에 관한 記錄이 많이 보인다. 그런데 이 彌勒菩薩은 개인의 구체적인 現世利益을 위해서라기보다는

◦ 述宗公이 竹旨嶺의 北峰에 居士를 장사지내고 돌로 彌勒·軀를 만들어 무덤 앞에 세웠는데 述宗公의 부인이 花郎竹旨를 낳았다.

(卷二 孝昭王代 竹旨郎條)

◦ 讀者婆郎歌를 지은 忠談師는 每年 三月三日과 九月九日에 南山 三花嶺의 彌勒世導에게 茶供卷을 했다.

(卷二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條·卷三 生義寺 石彌勒條)

◦ 眞智王때 興輪寺의 중 眞慈가 堂主인 彌勒尊像의 앞에 가서 花郎으로 化身하여 주기를 빌었는데, 彌勒仙花 未尸郎을 만났다.

(卷三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條)

등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듯이 주로 鎮護國家的 차원에서 花郎과 결부되거나 卷三의 南白月二聖 努朕夫得 恒恒朴朴條에 夫得이 東嶺의 磊房에서 彌勒을 구했다고 하는 기록이나 卷四의 眞表傳簡條에 眞表가 彌勒菩薩을 구해 수행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求道の 對象으로 신봉되었다고 보아진다. 또 三國史記 列傳第十 弓裔條에는 弓裔가 彌勒菩薩이라 自稱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이상으로 보아 新羅에 있어서의 彌勒菩薩은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 上層階層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보살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彌勒菩薩은 앞에서 인용한 花郎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鎮護國家的 性格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 上代佛敎에 있어서 觀音菩薩·文殊菩薩·普賢菩薩·藥師如來와 함께 密敎的 性格을 농후히 지닌 菩薩이었다고 생각되어진다.

이 彌勒菩薩의 密敎의 性格을 내보이는 구체적 예로서는 먼저 三國遺事 卷五 속의 密本摧邪條를 들 수 있다. 藥師經을 읽어 善德女왕의 병을 고친 密僧 密本은, 承相 金良圖가 어렸을 때 그의 병을 고쳐준 적이 있는데 良圖가 그 일로 인해 평생 불교를 깊이 신봉하고 興輸寺의 吳堂의 主佛인 彌勒尊像과 좌우의 菩薩 塑像을 만듦과 동시에 金色으로 堂의 벽화를 그리게 했다. 이것과 良圖의 병의 원인이었던 鬼神 무리가 密本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四方大力神을 두려워 했다는 사실을 아울러 생각해 보면 彌勒菩薩은 四方大力佛<sup>11)</sup>의 하나로서 密敎의 性格을 지니고 있었다고 추찰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卷四에 있는, 眞表에 관한 기록인 眞表傳 簡條와 關東楓岳鉢淵蔽石記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眞表는 法相宗의 開祖인데 法相宗이 인도에서는 瑜珈宗과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과 明明法師가 瑜珈明僧十二人和 文豆婁秘法을 행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眞表도 일종의 密敎系 僧侶였다고 생각되어지는데 說話를 보면 그가 궁극적으로 구한 것은 彌勒菩薩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가 不思議房에서 修行하여 彌勒菩薩로부터 占察經二卷과 簡子一八九枚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彌勒菩薩이 新羅時代에 呪密的 性格을 지녔음을 명확히 말해 주는 것이라 보아진다. 이처럼 彌勒菩薩이 呪密信仰을 강하게 지니게 된 것은 金承燾 님도 논급하고 있듯이 受容初期부터 花郎徒와 결부되어 鎮護國家의 佛菩薩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라<sup>12)</sup>라 생각된다.

다음은 乾達婆에 관해서이다.

大智度論 卷第五四에는

四天王天者 東方名提多羅吒奏言 治國 主乾闥婆及毗舍闍 南方名毗流維奏言 增長 主拘槃荼  
及薛荔多 西方名毗流波叉奏言 雜語 主諸龍王及富多那 北方名鞞沙門奏言 多聞 主夜叉及羅刹

(高麗大藏經十四 p. 1038)

11) 卷三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條에는, 眞平王九年(五八七)에 竹嶺의 동쪽 山에서 四方如來의 像이 세겨진 돌이 나타났고, 또 景德王이 栢栗寺에 행차하여 산 밑에 이르렀을 때 땅속에서 열불을 외는 소리가 들려 땅을 파게 하니 四面에 四方佛이 새겨진 큰 돌이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四方佛이 무엇인가는 확실하지 않지만, 李箕永 님도 新羅後期の 四方佛에 彌勒菩薩을 넣고 있다. (象徵的 表現을 통해서 본 七·八世紀의 新羅 및 日本의 佛國上思想) 『韓日古代文化交涉史研究』, 乙酉文化社, 1974.)

12) 註 1의 論文, p. 31.

라고 하였다.

또 大方等大集經 卷第五二에는 四天王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보이는데 그 중 大集經月藏分第十二 提頭賴吒天王護持品第十一에는

尔時復有百億提頭賴吒天王…合掌敬禮作如是言 大德婆伽婆…我等於彼動加護持攝受養育 令心不濁離諸散亂趣程樂門 隨幾時中 我等常當遮障一切惡心衆生 令善法朋久住增長 一切關諍疫病飢饉 非時風雨水寒毒熱苦辛…衆惡不可樂事悉令休息…尔時 佛告樂勝提頭賴吒天王言 妙丈夫 此四天下閻浮提中東方四分 汝應護持 何以故此閻浮提諸佛興處 是故汝應最上護持過去諸佛已曾教汝護持養育 未來諸佛亦復如是 并及汝子乾闥婆衆諸夜叉等一切眷屬 應令敬信護持養育

(高麗大藏經七 pp.493-4)

라 하였으며 계속하여 乾達婆·乾達婆大力軍將兄弟三人, 乾達婆兄弟十一人, 乾達婆三十三人 등 乾達婆 무리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이들 기록으로 보아 乾達婆는 護世四天王중 東方을 수호하는 提多羅吒天王(提頭賴吒라고도 하는데 持國天王이다.)에屬하고 있는 神將임을 확인할 수 있다.

彗星歌는 이와 같이 新羅時代에 呪密的 信仰과 밀착되어 수용된 彌勒信仰과 乾達婆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노래에도 呪密的 性格이 있으리라 보아지며 彗星(日本兵)을 퇴치했다고 하는 結果로부터 眞言의 性格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겠다. 비록 彌勒菩薩·乾達婆에 직접 請願한 것은 아니지만, 眞言이 ‘神鬼등에 대해 發해지는 神聖한 語句’이며 ‘眞言의 相은 비록 畢竟寂滅相이라고 해도 衆生의 根欲에 따라 그것을 이롭게 하는 까닭에 世俗의 文字를 가지고 표시한다’<sup>13)</sup>고 한 것을 생각하면 彗星歌는 新羅語로 지어져, 日本兵의 來侵으로 암시된 彗星을 퇴치하기 위해 彌勒菩薩과 乾達婆의 加持力을 배경으로 하여 불리어진 眞言的 性格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겠다.

13) 『望月佛教大辭典』3, p.2030.

### Ⅲ-3. 語釋과 作者問題

노래 내용에 들어가 보면 ‘舊理東戶汀叱 乾達婆矣遊烏隱城叱勝良望良古  
倭理叱軍置來叱多烽燒邪隱邊也蔽耶’의 三句는 三國史記 新羅本紀第一 祇  
摩尼師今 十一年條의

夏四月 大風東來 折木飛瓦 至夕而至 都人訛言 倭兵大來 爭遁山谷 王命伊淩瑟  
宗等諭止之

라 한 기록을 연상시킨다. 특히 ‘乾達婆의 놀던 城’은 三國史記 新羅本紀  
等三 實聖尼師今 十二年條의

秋八月 雲起狼山 望之如樓閣 香氣郁然 久而不散 王謂是必仙靈降遊 應是福地  
從此後禁人斬伐樹木

이라 한 기록과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이 표현이 후대적인 것임과 狼山  
의 神遊林에 四天王寺가 세워진 것을 아울러 생각해 보면 ‘乾達婆의 놀던  
城’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彗星이 나타났지만 아무런 異變이 일어나지  
않도록 乾達婆에 부처서 은유적으로 묘사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것은  
後句 第九·第十句의 ‘達阿羅浮去伊叱等邪 此也友物此所音叱彗叱只有叱  
故’와 같은 류의 것으로, 彗星出現이라는 異現象이 소멸되기를 바라는 願  
望을 先驗의으로 표현한 眞言의 노래라 보아진다.

第九句의 ‘達阿羅浮去伊叱等邪’의 解釋에 대해 諸研究者들은 ‘月’과 관  
련시켰고, 洪起文·金思燁님은 彗星이 떠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 ‘다  
라라’로 보았다.

‘達’을, 과연 ‘月’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三國遺事に  
실려 있는 鄉歌 중에서 ‘月’이 사용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月置八切爾數於將來戶波矣(彗星歌)
- 月下伊底亦(願往生歌)
- 月羅理影支古理因淵之叱(怨歌)
- 露曉邪隱月羅理(讚耆婆郎歌)
- 東京明期月良(處容歌)

그리고 卷五 永才遇賊條에 들어 있는 遇賊歌의 第二句 ‘日遠鳥逸□□過出知遺’ 중의 欠字에 대해 金完嶺님은 ‘月矣’가 들어 가야 할 것<sup>14)</sup>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論外로 하더라도 위에서 보았듯이 鄉歌에 쓰여진 ‘달’에는 ‘月’字만이 사용되어 있다. 특히 같은 彗星歌의 第五句에도 ‘月’이 사용되었음으로 보아 일부러 ‘達’字를 가지고 ‘月’의 의미를 表記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達阿羅’는 彗星의 떠가는 의태어로도 볼 수 있지만, 撰者가 경상도 출신이라는 점과, 또 第十句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彗星이 ‘다아라(달아나) 떠 갔다’로 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彗星退治에의 願望을 더 강조할 수 있고 眞言의 效果도 또한 얻을 수 있었으리라 보아진다.

다음 作者 融天師에 대해서도 간단히 言及해 두고자 한다.

散文記錄 중의 三花之徒로 보아 楓岳에 놀러가는 것은 大規模의 행사였다고 생각되어진다. 花郎이 國家守護의 主役을 담당하고 있었던 만큼 花郎團에는 星宿關係를 맡은 呪密師도 所屬되어 있었으리라 보아지는데 融天師는 그와 같은 성격을 지닌 郎僧이었지 않았을까 싶다.

三國史記 雜志第八의 職位와 官等에 관한 부분에는 司天博士가 보이며 列傳第三 金庾信條에는

允中庶孫峻 性聰敏 好習方術 少壯爲伊湊 入唐宿衛 間就師學陰陽家法 聞一隅則反之以三隅 自述遁甲立成之法 呈於其師 師撫然曰 不圖吾子之明達至於此也 從是而後 不致以弟子徒之 大曆中 還國爲司天博士

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와 같은 司天職이 彌勒信仰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花郎團에는 呪密的 性格을 지니고 존재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融天師는 그러한 司天關係를 담당한 呪密系의 郎僧이었으리라 보고 싶다.

14) 『鄉歌解讀法研究』,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0, p.147.

#### IV. 兜率歌

##### IV-1. 兜率歌의 呪敎的 性格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三國遺事 卷五 感通第七에 들어 있는 月明師 兜率歌條의 兜率歌에 대해 論하기로 하되 本歌와 관계 있는 부분만 本文을 인용하기로 한다.

景德王十九年庚子四月朔 二日並現 挾旬不滅 日官奏請緣僧 作散花功德則可禳於是潔壇於朝元殿 駕幸青陽樓 望緣僧 時有月明師 行于阡陌寺之南路 王使召之 命開壇作啓 明奏云 臣僧但屬於國仙之徒 只解鄉歌 不閑聲梵 王曰 旣卜緣僧 雖用鄉歌可也 明乃作兜率歌賦之 其詞曰

今日此矣散花唱良  
巴寶白乎隱花良汝隱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  
彌勒座主陪立羅良

解曰

龍樓此日散花歌 挑送青雲一片花  
殷重直心之所使 遠遯兜率大偈家  
今俗謂此爲散花歌 誤矣 宜云兜率歌 別有散花歌 文多不載 旣而日旣卽滅 王嘉之 賜品茶一甌 水精念珠百八箇 忽有一童子 儀形鮮潔 跪奉茶珠 從殿西小門而出 明謂是內宮之使 王謂師之從者 及玄微而非 俱王甚異之 使人追之 童入內院塔中而隱 茶珠在南壁畫慈氏像前 知明之至德與至誠 能昭假于至聖也如此 朝野莫不聞知 王益敬之 更獻絹一百疋 以表鴻誠

兜率歌의 呪敎的 性格에 관해서는 金承燾님의 論文「鄉歌의 佛敎的 考察」이 매우 示唆的이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그리고 보완하는 의미에서 敦煌雜曲 등의 자료를 가지고 論하고자 한다.

兜率歌에 관한 附帶說話는 ‘二日並現’이라는 天文의 異現象이 생겼는데 月明師를 불러 散花功德을 배풀어 그 異現象을 퇴치했다고 하는 내용으로, 兜率歌의 그것과 같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二日並現등 太陽의 異現象에 관한 記事는 三國史記에

- 惠恭王二年春正月 二日並出 大赦(新羅本紀第九)
- 文聖王七年十二月朔 三日並出(新羅本紀第十一)

이 보인다.

本說話에서 두개의 태양의 出現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記述은 보이지 않는다. 文殊師利菩薩及諸仙所說吉凶時日善惡宿曜經 上卷에는 ‘但日月天子 俱以五星爲臣住’(高麗大藏經 三十七 p.261)이라 하였으나 앞에서도 인용한 金光明最勝王經으로 보아 질서의 파괴를 의미함<sup>15)</sup>은 확실하다. 이 파괴된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한 散花功德이 배풀어졌던 것이다. 노래의 第四句 ‘彌勒座主陪立羅良’와 王이 내린 茶와 水精念珠가 南壁畫彌勒像 앞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說話內容으로 보아 兜率歌도 擘星歌와 마찬가지로 彌勒信仰을 배경으로 한 眞言의 性格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겠다.

擘星歌가 彌勒信仰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乾達婆에 부쳐서 隱喩의으로 표현한, 즉 言語 自體에 중점을 둔 眞言의 노래임에 비해, 兜率歌는 散花供養儀式을 구체적으로 배풀고 彌勒菩薩을 적극적으로 칭찬 것이라는 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三國遺事 卷三의 四佛山掘佛山 萬佛山條에, 景德王이 萬佛山 曼荼羅를 唐의 代宗皇帝에게 보내자 代宗皇帝가 三藏不空에게 命하여 密部眞詮干遍을 念讚하게 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景德王 時代에는 密敎가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 성행했기 때문이라 보아진다.

二日並現의 現象을 물리치기 위해 散花供養儀式이 채택된 것은, 먼저 꽃이 燒香과 마찬가지로 諸佛을 칭하는 의미<sup>16)</sup>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釋

15) 『心地觀經』에 ‘國王恩者 福德最勝 雖生人間 得自在故 三十三天諸天子等 恒與其力 常護持故 於其國界山河大地 盡大海際屬于國王 一人福德 勝過一切衆生福故 是大聖王 以正法化 能使衆生悉皆安樂 譬如世間一切堂殿柱爲根本 人民豐樂 王爲根本 依王有故 亦如梵王能生萬物 聖王能生活國之法 利衆生故’(『大正新修大藏經 三』 p.297)라 하였다. 國王은 특수한 위치에 있어 正法의 興起를 맡은 존재임을 알 수 있다. 天文의 異變은 國王의 책임과의 관계에서 인식되었던 것이라 하겠다.

16) ‘꽃이 淸淨의 妙色을 열면 諸佛이 와서 앉는다. 때문에 下界에서는 꽃을 가지고 淨土로 산다. 色을 보고 香氣를 맡으면 여러 귀신이 그것을 싫어함이 糞穢의 色과 香氣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이다. (『望月佛敎大辭典』 2, p.14 95.)

尊影響仁王經秘法 第六卷 散華品에

初十六大國王 散百萬億行華 百萬於行華於虛空中 變爲一座 十方諸佛影響共座  
華臺

(大日本佛敎全書一 p.94)

라 한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諸佛을 맞이하는 具體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 보아진다.

散花를 맡은 중을 散華師라고 하며 이는 講師·讀師·呪願師·三禮師·  
唄師·堂達과 함께 七僧이라 불리는데 本說話에서 二日並現 現象을 퇴치하  
기 위해 散花供養儀式에서 兜率歌를 지은 月明師는 密敎의 性格을 지닌  
呪願師였다고 추측된다. 이것은 그가 明朗法師의 文豆婁秘法에 의해 開創  
된 神印宗의 四天王寺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또 죽은 누이를 위해 鄉歌를  
지어 제사지내니 갑자기 바람이 일어 紙錢을 서쪽으로 날렸다고 하는 설  
화의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다.

또 菩薩 중에는 月明菩薩이 있는데 이는 月光菩薩·月光童子와 같은 것  
으로 藥師如來의 二脇侍의 하나이며 또한 胎藏界曼荼羅文殊院 중의 一尊  
이기도 함을 생각하면 ‘月明師’라고 하는 이름은 月과 같은 清涼의 法樂  
을 衆生에게 베푸는 이 月明菩薩의 이름에서 취한 것으로 花郎團에 속해  
있으면서 呪密을 맡은 郎僧이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王이 불렀을 때 ‘巨僧但屬於國仙之徒 只解鄉歌 不閑聲梵’이라  
하여 國家守護團體인 花郎徒와 밀착한 彌勒菩薩을 請하여 그 加持力에 의  
해 二日並現 現象을 물리치려고 眞言的 性格의 兜率歌를 지어 부른 것이  
라 생각된다. 彌勒菩薩의 密敎의 性格에 대해서는 이미 論했으므로 생략  
하기로 한다.

法苑珠林 卷第六十 呪術篇第六八 속의 彌勒部에는 七佛所說神呪經을  
인용한 뒤 西國의 三藏이 입으로 전한 願見彌勒佛呪가

南無彌帝隸耶夜 菩提薩埵夜 哆嚩他 彌帝隸彌帝隸 彌哆囉摩那 柶 彌哆囉三播鞞  
彌哆嚩嚩鞞 莎婆訶

(高麗大藏經 三十九 p.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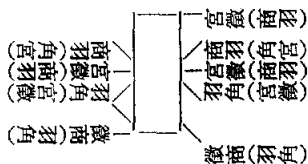
라고 보이는데 兜率歌도 이와 같은 류의, 新羅語로 만들어져 彌勒菩薩을 칭해 二日並現의 異變을 물리친 眞言的 노래라 보아지는 것이다.

#### IV-2. 散花歌와 兜率歌

이번에는 散花歌와 兜率歌에 관해 論해 보고자 한다.

散花供養儀式은 行道하면서 꽃을 뿌리는 것이 正式이다. 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 開成四年(八三九)十一月二十二日條의 新羅一日講儀式 중에는 ‘唱經하는 동안 大衆은 세번 散花한다. 散花때마다 各各 頌하는 것이 있다.’<sup>17)</sup>라고 한 것이 보이는데 新羅時代의 散花儀式에도 置接 꽃을 뿌렸다고 생각된다. 또한 說話에 ‘作散花功德’이라 하였음과 노래 속의 ‘巴寶白乎隱花良汝隱’이라 함과 또 撰者가 兜率歌를 해석한 詩에 ‘挑送青雲一片花’라 했음으로 보아서도 月明師의 散花儀式에는 꽃을 실제로 뿌렸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런데 圓仁의 위의 책 중의 赤山院講經儀式을 보면 講師가 高座에 오르는 동안 大衆이 佛名을 稱嘆하는 音曲은 新羅에 의한 것인데, 下座의 중이 作梵하는 것은 唐風에 의한 것이라 한 기록과, 月明師가 ‘不閑聲梵’이라 하였음을 아울러 생각해 보면 新羅時代에 梵唄師가 따로 있어 散花供養때 梵唄로 散花歌를 부르는 것이 正式이었다고 보아진다. 일본의 大正新修大藏經의 魚山目錄에는 散花·短聲散花樂四奉請·引聲散花樂·顯教散花 등의 博士圖가 보이는데 그 중에서 散花를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7) 註5, p. 202.



役道讚梵偈

奉請彌陀世尊入道場 散華樂

奉請釋迦如來入道場 散華樂

奉請十方如來入道場 散華樂

(同上: p. 427)

이 있다 '또 같은 책 四十七卷 中の 淨土五會念佛略法事儀讚에는

散華樂文 依大般若經散華品

散華樂散華樂 奉請釋迦如來入道場 散華樂 散華樂散華樂 奉請十方如來入道場

散華樂 散華樂散華樂 奉請彌陀如來入道場 散華樂 散華樂散華樂 奉請觀音勢至

諸大菩薩 入道場 散華樂 道場莊嚴極清淨 散華樂 天上人間無比量 散華樂

(p. 476)

이 있다.

그런데 이들 散華樂은 道場儀式에

作道場時 先須□梵 梵了 啓請 啓請即須發願 了 即須誦散花樂讚 了 即四字念佛 三五十口 即誦阿彌陀經 衆和 了 即五會念佛 了 即誦散花樂讚 即到誠懺悔佛前 慙 歎至心發願 作清淨梵唱 回禮 即散

이라 하였음을 보아 正式清淨梵唱 앞에 二回 불렀던 것이라 생각된다.

三國遺事의 撰者가 '今俗謂此爲散花歌 誤矣 宜云兜率歌 別有散花歌 文多不載'라 하였음과, 月明師가 자신은 '不聞聲梵' 이라 함에 대해 王이 '雖用鄉歌可也'라 하였음 등으로 보아 新羅時代의 正式의 散花儀式에는 梵唄로 散花樂<sup>20)</sup>과 같은 류의 散花歌를 불렀던 것이라 보아지는데 兜率歌는 敦煌雜曲七首와 같은 類의 것으로 變文의 영향하에 新羅語로 부른 散花歌가 아니었던가 한다.

說話에서, 王이 月明師를 緣僧으로 맞아 '命開壇作啓'하였음으로 보아 月明師의 呪密의 能力으로 二日並現 현상을 퇴치하려고 그에게 散花儀式을 배

20) 그의 散花는 또한 『隋書』 卷十五 志第十 音樂下에 '...謂之爲文康樂 每奏九部樂終則陳之 故以禮畢爲名 其行曲有單交路 舞曲有散花'라 하였고 『太平御覽』 卷五六八 樂部 六 宴樂 女樂에도 같은 내용이 보인다.

풀게 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月明師는 梵唄에 익숙하지 않았던 까닭에 노래의 第一句 ‘今日此矣散花唱良’에서 보듯이 兜率歌를 散花歌에 대신하여 부른 것이라 추측된다. 月明師의 鄉歌 兜率歌가 正式의 梵唄 散花歌와 혼동되고 있었기에 撰者는 그것을 확실히 구별하고자 했던 듯하다.

正式의 散花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四天王寺에 살고 있는 月明師에게 散花供養을 맡기고 鄉歌로 兜率歌를 짓게 허용한 점, ‘今俗謂此爲散花歌’로 보아 兜率歌는 撰者當時 散花歌로 널리 알려져 있었던 노래임을 알 수 있는데 撰者가 解曰이라 하여 노래의 내용을 漢詩로 설명하고 있는 점, 또 鄉歌를 ‘故往往能感動天地鬼神者非一’이라 하여 毛詩序의 詩論에 바탕하면서도 佛敎的 呪歌를 강조하고 있는 점 등으로부터 撰者도 역시, 이 兜率歌를 散花供養에서 彌勒菩薩을 칭해 그 加持力에 의해 二日並現의 異現象을 퇴치한 眞言的 性格의 노래로 인식했던 것임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桴星歌·兜率歌의 二首 모두 三國遺事 卷五의 神呪篇 다음 篇目인 感通篇에 들어있음도 주목된다 하겠다.

## V. 禱千手觀音歌의 呪密의 性格

그러면 마지막으로 卷三의 芬皇寺 千手大悲 盲兒得眼條에 들어 있는 禱千手觀音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景德王代 漢岐里女希明之兒 生五稔而忽盲 一日其母抱兒詣芬皇寺左殿北壁畫千手大悲前 令兒作歌禱之 遂得明 其詞曰

膝勝古忍旃

二戶掌音毛乎支內良

千手觀音叱前良中

祈以支白屋戶置內乎多

千隱手□叱千隱目勝

一等下叱放 一等勝除惡支

二于萬隱吾羅

一等沙隱賜以古只內乎叱等邪阿邪也

吾良遺知支賜尸等焉

放冬矣用屋尸慈悲也根古

讚曰 竹馬葱笙戲陌塵 一朝雙碧失瞳人 不因大士迴慈眼 虛度楊花幾社春

說話 속의 ‘芬皇寺左殿北壁畫千手大悲’와 노래에 ‘千手觀音’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禱千手觀音歌는 千手觀音菩薩의 加持力에 의해 得眼하려고 한, 개인의 구체적 이익을 구한 眞言의 性格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미 앞에서 살핀 彗星歌·兜率歌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發願을 彌勒菩薩의 加持力에 주로 의존하고 있음에 비해 本歌는 개인의 발원을 千手觀音의 加持力에 부쳐서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請願形式으로 표현하고 있다.

觀音菩薩은 添品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第二十四에

若有無量百千萬億衆生 受諸苦惱 聞是觀世音菩薩 一心稱名觀世音菩薩 即是觀其音聲皆得解脫

(大正新修大藏經 九 p.191)

이라 한 것처럼 一切衆生界를 無碍自在로 관찰하여 구제하는 菩薩이다.

三國遺事에는 觀音信仰에 관한 說話가, 彌勒信仰과 마찬가지로 많아 약 20여개소에 보인다. 이들 대부분의 說話는

① 崔殷誠이 衆生寺의 觀音菩薩 앞에 가 기도한 결과 아들을 낳았다. 百濟의 견훤이 來侵하였으므로 아이를 觀音像의 獅子座 밑에 숨겨 놓았는데 半月이 지나 돌아와 보니 아이의 입에는 紺髮새가 나며 무사했다.

(卷三 三所觀音 衆生寺條)

② 國仙 夫禮郎이 鞋襪賊에게 잡혔는데, 夫禮郎의 부모가 大悲像에 기도하였더니 돌아와 있었다.

(卷三 栢栗寺條)

③ 禹金里의 寶開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 長春이 바다 상인을 따라간 뒤 소식 이 없으므로 敏藏寺의 觀音 앞에서 7일간 기도하니 長春이 어느새 돌아 왔다.

(卷三 敏藏寺條)

④ 觀音菩薩이 夫得·朴朴의 大菩提를 이루어 주었다.

(卷三 南白月二聖 努勝夫得 担担朴朴條)

⑤ 漢岐里에 사는 希明이라는 여인이 아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芬皇寺의 千手畫像 앞에 가서 노래를 지어 아이에게 부르며 기도하게 하니 눈을 뗐다.

(卷三 芬皇寺千手大悲 盲兒得限條)

⑥ 世達寺의 調信이 金昕公의 딸을 사모하여 洛山寺의 大悲前에 가서 인연을 맺어 주도록 기도했는데 꿈으로 깨우침을 얻어 淨土寺를 세우고 修道에 전념했다.

(卷三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條)

⑦ 慈藏은 千手觀音에 빌어서 난 사람이다.

(卷四 慈藏定律條)

⑧ 觀音菩薩이 芬皇寺의 종으로 現身하여 廣德과 嚴莊을 도와 大菩提를 이루게 했다.

(卷五 廣德 嚴莊條)

⑨ 三郎寺의 중 標興의 病을 南巷寺의 十一面圓通像이 女僧으로 化身하여 고쳐 주었다.

(卷五 標興遇聖條)

등에서 볼 수 있듯이 祈子·治病·大菩提의 성취 등 衆生을 널리 구제하고 있는데, 주로 서민계층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卷二 文虎王法敏條에, 金仁間을 唐에서 돌아오도록 新羅人이 觀音道場을 開設했는데 仁間이 귀국 도중 海上에서 죽어버렸으므로 彌陀道場으로 고쳤다고 한 記錄과 卷三의 三所觀音 衆生寺條의 觀音과 衆生과의 관계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觀音菩薩은 現世利益 특히 서민의 現世求福의 信仰과 잘 부합하는 菩薩이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觀音菩薩은 阿彌陀如來의 挾侍의 一尊으로 인간의 어떠한 危難에도 응하여 각종의 형상으로 변하여 구제해 주는 까닭에 서민계층의 토속신앙과 결부되어 密敎의 性格을 지니게 되었다고 본다.

三國遺事 卷三의 台山五萬眞身條에는 寶川太子가 임종할 때 남긴, 국가를 위해 山中에서 행해야 할 일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寶川太子는 五台山을 中心으로 曼荼羅의 世界를 세우려고 하는 뜻을 보이는데, 가장 먼저

東方에 觀音房을 두어 圓像觀音과 一萬의 觀音像을 그려 奉安하고 金光明經·千手呪를 읽어 觀音을 禮懺하도록 했다 함에서도 新羅時代에 있어서의 觀音信仰의 密敎的 性格을 명확히 볼 수 있는 것이다.

觀音菩薩의 구제력이 강대해짐에 따라 十一面觀音·千手觀音과 같은 變化觀音이 생기게 되는데 變化內容에 있어서 최고의 힘을 지니는 것은 千手觀音이다.

이 千手觀音菩薩의 大悲願力の 深重함과 陀羅尼威神의 광대함에 대해서는 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의

佛告阿難 若有國土災難起時 是土國王若以正法治國 寬縱人物不枉衆生赦諸有過 七日七夜身心精進誦持如是大悲心陀羅尼神呪 令彼國土一切災難悉皆除滅 五穀豐登萬姓安樂 又若爲於他國怨敵 數來侵擾百姓不安 大臣謀叛疫氣流行 水旱不調日月失度如是種種災難起時 當造千眼大悲心像面向西方 以種種香華幢旛寶蓋或百味飲食至心供養 其王又能七日七夜身心精進 誦持如是陀羅尼神妙章句 外國怨敵即自降伏…又若家內遇大惡病百怪競起…當向千眼大悲像前設其壇場 至心念觀世音菩薩 誦此陀羅尼滿其千遍 如上惡事悉皆消滅 永得安隱

(大正新修大藏經 二十 p.109)

이라 한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이같이 가장 큰 구제력을 가진 千手觀音畫像앞에서 開眼을 위해 노래를 불러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함은 禱千手觀音歌가 眞言的 性格의 노래임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노래의 第一·第二句에서 ‘膝盼古召旆二尸掌音毛乎支內良’라고 하여 먼저 기도의 자세를 갖추어 一種의 身契를 짓고, 간절한 發願心에서 心密을, 그리고 그것을 言語로 표현하여 노래부른 점에서 口密을, 즉 三密을 모두 갖춘, 呪密信仰에 바탕한 眞言的 노래라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第八句 ‘二于萬隱吾羅’의 해석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해 두고자 한다.

諸學者들은 ‘둘 다 없는(보이지 않는)’으로 해석하였다. ‘萬’이 과연 ‘盲’의 의미로 쓰였을 지 무척 의문이다. 또 第九句가 ‘一等沙隱賜以’로 되어 있는 문맥과의 관계에서 ‘萬’의 원래의 의미, 즉 ‘많다’는 뜻으로 보아

‘들은 나에게 과분하게 많은 것이니 하나만이라도 베풀어 달라’로 풀이함이 좋지 않을까 한다.

## VI. 結

이상으로 彗星歌·兜率歌·禱千手觀音歌의 鄉歌 三首의 呪密의 性格에 대해 論하였는데 결론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彗星歌는 新羅時代에 國家守護團의 花郎徒와 밀착하여 鎮護國家의 性格을 농후하게 지니고 있었던 彌勒菩薩과 護世四天王 가운데서 東方을 護持하는 持國天王 아래에 있는 乾達婆神將에 바탕하여 그 加持力에 의해 彗星(여기서는 日本兵의 來侵)을 퇴치하기 위해 부른 眞言의 性格의 노래로 보았다.

明朗法師의 文豆婁秘法에 의한 唐兵調伏이나 法全阿闍利에 의한 日本兵調伏法과는 달리, 具體的 密儀式을 베풀지 않고 眞言의 노래만으로 彗星을 물리친 것은 彗星歌가 新羅密敎 初期의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노래의 第九句 ‘達阿羅’의 해석에 있어서, 三國遺事에 실려 있는 鄉歌 가운데서 ‘달’의 의미에 ‘達’字가 쓰여진 예는 하나도 없으며 모두 ‘月’字가 사용된 점에서, 또 撰者가 경상도 출생임을 감안하여 ‘다아라(달아나)’의 뜻으로 풀이해 보았다.

作者 融天師는 花郎團에 속하여 있으면서 天文關係를 담당한 密敎系 郎僧이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兜率歌에 대해서이다.

兜率歌는 散花供養을 구체적으로 베풀고 彌勒菩薩을 맞아 그 加持力으로 二日並現의 異現象을 물리치기 위해 불린 眞言의 性格의 노래라고 생각된다.

作者 月明師는 四天王寺에 살면서 花郎團에 속해 있는 一種의 密僧이었겠는데 그 이름은 樂師如來의 二脇侍의 하나이며 또한 胎藏界曼荼羅文殊院 가운데의 一尊이기도 하여 清涼의 法樂을 衆生에게 베푸는 月明菩薩과 관

계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敦煌雜曲등의 여러 資料로부터 散花樂의 예를 들어 보았는데, 月明師의 ‘臣僧但屬於國仙之徒 只解鄉歌 不閑聲梵’이라 함과, 그에 대해 王이 ‘既卜緣僧 雖用鄉歌可也’라 대답한 점 그리고 또 撰者의 ‘別有散花歌’라 한 점 등으로 보아 新羅時代에 散花師가 따로 존재해 있었다고 보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梵聲에 익숙하지 않은 月明師를 맞아들인 것은 그의 呪密師로서의 能力이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으로 月明師는 正式의 散花歌에 대신하여 鄉歌로 兜率歌를 지어 불렀다고 보아진다. 이로써 미루어 보면 鄉歌 兜率歌는 梵唄등의 正統의 佛敎歌에 대해 敦煌雜曲과 같은 류의 變文의 영향하에 신라어로 지어져 불린 것이 아닌가 한다.

說話의 후반부에서 撰者가 ‘羅人尙鄉歌者尙矣 蓋詩頌之類歟 故往往能感動天地鬼神者非一’이라 하였음과 擘星歌·兜率歌 양쪽 다 卷五 神呪篇 다음의 感通篇에 들어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또한 이들 노래는 撰者에게도 呪密的 노래로 인식되었던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마지막으로 禱千手觀音歌에 관해서이다.

擘星歌·兜率歌가 天文의 異現象을, 國家의 차원에서 彌勒菩薩의 加持力에 주로 의존하여 물리친 데 비해 禱千手觀音歌는 開眼이라고 하는 개인의 구체적 發願을, 變化의 內容에 있어 최고의 구제력을 가지며 또한 서민층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지녔던 千手觀音의 加持力에 부쳐서 노래한 呪密的 性格의 노래라고 보았다.

第八句의 ‘二千萬隱吾羅’의 ‘萬’은, 第九句의 ‘一等沙隱賜以’과의 문맥 관계로 보아서도 글자 그대로 ‘많다’는 의미로 보아 ‘들은 나에게 많은 것이니 단 하나만이라도’로 해석함이 옳지 않을까 한다.

(本 論文은 1985年 10月6日 天理大學에서 잇은 朝鮮學會에서 발표한 것을 정리한 것임)